

수화의 사회교육적 접근방법 모색 및 전망:
농인을 위한(for), 농인에게 다가가고(to), 농인과 함께 하는(with) 수화 교육

허일(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I. 들어가며

1Q84라는 소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실증 가능한 진실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진실이란 대개의 경우, 강한 아픔이 따른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아픔이 따르는 진실 따윈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느끼게 해주는 아름답고 기분 좋은 이야기다 ...

이 구절을 읽고 오랜 동안 기억하게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수화와 점자를 배우며 시작된 특수교육과 수화, 농인과의 인연 속에서, 많은 삶들이 그러했던 이유를 잘 설명하는 단락이었기 때문이다. 왜 언어치료사들이 자신들이 치료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왜 특수교사들이 자신들이 교사, 특히 특수교사라고 믿고 있는지, 왜 수화통역사들이 자신들이 수화통역하고 있다고 믿는지, 왜 손짓 한국어(수지 한국어, 한글식수화 등)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수화(한국농인의 언어, Korean Sign Language)를 배웠고, 사용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지.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 청인들이나 전문가들은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심지어 착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얻을 걸 얻었으니, 좋은 일이지만, 농인들은 뭘 얻게 될까요?

대학교 1학년 때 수화 배우면서 수화노래도 많이 하고 일일잡 주점 때마다 수화노래하고 수화노래로 사랑의 수화제에도 나가고 잘 한다는 소리도 들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진실을 알게 됐고 강한 아픔이 다가왔다. 그때 떠났다면, 떠날 수 있었다면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도 남아 활동하는 상황에서 강한 아픔을 수반하는 진실과 그 진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하루키의 표현이 가슴에 시리게 다가온다

대학교 1학년 때 수화 배우고 그게 농인의 언어인 줄 알고 내가 어쭙잖게 하는 통역이 한국어-한국수화 통역이고, 내가 아는 2000개의 단어가 한국수화이고, 왜 한국어처럼 한국수화 문법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의문조차 갖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한국어 사용자인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국어 어순에 따라 배운 수화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한국수화이고, 그러면 농인과 대화하고, 농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던 때가 있었다. 내가 배운 수화가 한국어(손짓 한국어, 수지 한국어, 한글식 수화, Signed Korean)이고, 그래서 배울 때 그렇게 재미있고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건 몇 년이 지나서였다. 그 사이 후배들 수화 노래 훈련도 엄하게 시키는 선배 역할도 해봤고, 수화 교재도 만들어봤고, 통역하러 다니기도 했다(통역하는 줄 알았고, 통역이라 믿었다). 하지만 실증가능한 진실은 역시 강한 아픔이었

다. 사기꾼이 하는 일은 사기뿐이니깐요. 여전히 조금이나마 나를 의미있게 느끼기 위해 아름답고 기분 좋은 이야기나 듣고 만들어 내고 있다면 40이 넘은 지금 이 시기는 먼 훗날 또 다른 후회와 강한 아픔으로 남겠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정말 없다. 가짜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썩지 않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농인과 청인이 수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 수화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며, 농인의 의사소통 향상 및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아름답고 기분 좋은 이야기’에서 벗어나 한국의 수화 교육 및 학습 관련 문제점과 제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II. 한국 수화교육의 과제

1) 농인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한국에서 손으로 대화하는 것(手話)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수화¹⁾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크게 한국어와 한국수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손이라는 표현 수단(양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어 문법과 단어 나열 순서에 따라, 차용해온 한국수화 단어나 신조어(Invented Word)를 나열하는 경우, 언어학적으로 한국어, 즉 손짓 한국어(Signed Korean, 한국어대응수화, 한글식 수화, 문장식 수화, 아식 수화)로 보아야 하고, 한국 농인들의 언어인 한국수화(Korean Sign Language, KSL)는 한국어와는 다른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각 언어다운 문법 장치를 활용한다.

즉, 수화를 언어학적으로는 크게 KSL(Korean Sign Language)과 SK(Signed Korean)로 나눌 수 있다. KSL은 한국수화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Signed Korean은 한국어대응수화, 한글식 수화, 아식수화, 문법식수화, 문장식수화, 수지 한국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수화 교육 및 학습 장면에서 대상이 되는 ‘수화’는 대부분 한국어(Signed Korean)인 경우가 많았다. 손짓 한국어도 특수학교 등의 교육장면에서의 활용과 한국어 원문을 충실하게 전달(음역, Transliteration)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수화 관련 문헌에서 그 나라의 주류 사회 언어를 수화 버전으로 표현한 ‘수화’뿐만 아니라(예, Signed English), 그 나라 농인들의 고유 언어(예, ASL)도 연구·교육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 농인을 위한 통역사 시험에서 영어를 영어식 수화로 바꾸는 자격증(음역)과 영어를 미국수화(통역)로 바꾸는 자격증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는 것처럼, 수화 교육 장면에서 어떤 수화를 소개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한국어 중심 수화 교육에서 벗어나 한국수화에 대한 소개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주 많은 수화교육 장면에서 손짓 한국어(Signed Korean)를 배우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많은 수화 학습자들(농인, 청인 모두)이 자신들이 한국수화(KSL)를 배웠거나 어쨌든 수화(Sign Language)를 배우고 사용하고 있다는 착각이 만연하고 있다.

1) Sign Language를 한국어로 수화(手話) 또는 수어(手語), 수화언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한국 농인들의 언어가 손으로 대화하는 언어가 아니라 손도 사용하는 언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Hand Language 혹은 Manual Method를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농인들의 언어를 수(手)를 포함한 단어로 지칭하는 것은 농인의 언어를 과소평가한 결과이다. 발표자는 Sign Language를 ‘농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농인의 언어를 ‘수화’로 지칭해 왔기에 역사성과 대중성을 고려하여 ‘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수화 학습자들은 한국어 어순과 문법에 맞추어 아무런 고민 없이 자신이 배우거나 알고 있는 몇 백 개에서 1-2 천개의 단어를 한국어 단어 마다 수화 단어를 나열하며 손을 움직인다. 즉, 수화 단어를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한다.

또한 수화 배우기와 수화통역 배우기가 동일한 과정이며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수화 단어 1500-2000개만 배우면 수화통역사 자격증 따는 것도, 농인과 대화하고, 농인을 위한 통역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 때문에 오히려 수화 무용론이, 수화 배운 농인들은 바보가 되고 취업도 어렵고 사회 생활이 어렵다는 신념이 퍼져 나가고 있다. 한국어에 비해 수화 단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등, 수화로는 한국어 문장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등의 잘못된 신념이 수화의 한계, 무용론이 퍼지는 근거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화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수화가 이해할 수 없고, 불완전한 문장에 심지어 한국수화 입장에서는 비문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화 교육 장면에서 어떤 수화를 가르치고 배우는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 수화 버전(손짓 한국어)을 가르치고 배우는 경우,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국수화(Korean Sign Language)와 손짓 한국어(Signed Korean)가 단어의 차이일 뿐이고 (고급반에서 배우는 농식 수화 단어나 관용 수화 단어만 더 알면 한국수화 마스터 가능) 수화 단어의 의미와 형식, 실제 사용을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해도 무방하며, 수화 문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어 문법과 동일하고 한국어 어순에 따라 수화 단어를 나열하면 그게 수화고 한국수화라고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손짓 한국어(Signed Korean)'는 특정목적에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한국어에 능한 많은 농인들과 청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화 교육을 할 때 손짓 한국어 사용자와 한국 수화 사용자를 나누어 양성하고 통역사 자격증도 구분하여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농아인협회 등에서 손짓 한국어와 한국수화 명명 기준을 정하고 강사 교육이나 통역사 연수과정에서도 소개하고, 한국수화와 손짓 한국어 교육 인증 제도도 만들고, 한국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화가 손짓 한국어 사용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농인의 언어답게 수화 배우기

한국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화는 시각언어다. 시각언어인 한국수화는 한국어와는 다른 문법 장치를 사용한다. 시각언어인 수화는 시각언어답게 교육하고 학습하여야 한다.

시각언어인 한국수화의 특성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수화는 어순이라는 문법장치를 활용하지 않는다(Free Order)

한국어에서는 조사와 어순 등의 문법 장치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 동사간의 관계가 표현된다(-은-는-이-가 등의 조사가 있으면, 주어라는 것을 아는 식). 한국어에서는 조사뿐만 아니라 어순에 의해서도 주어 목적어가 결정되는데, '나 너 좋다' 라고 말해도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나'를 주어로, '너'를 목적어로 이해한다. 한국어에서 주어-목적어-동사(SOV) 어순을 기본 어순(Basic Word Order)으로 보는 이유다. 손짓 한국어의 어순은 대체

로 한국어와 동일한 어순을 따른다. 심지어 한국어 문장 어순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너를 내가 사랑해'라는 한국어 문장을 [너 나 사랑하다]라는 수화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보통이다(수화노래뿐만 아니라 많은 청인들의 수화와 일부 한국어에 능하신 농인들에게 나타나는 수화 문장임). 즉, 손짓 한국어(한글식 수화) 역시 기본 어순은 주어-목적어-동사 어순을 기본 어순으로 사용한다. 이에 비해 한국수화는 다른 나라 수화와 비슷하게 시각언어이고 공간을 활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free order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free order라는 용어가 어순이 자유롭다, 어순에 제약이 없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서 한국수화에서는 단어를 자유롭게 나열해도 되고, 어순이 자유로워 한국어 어순 그대로 해도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하지만, 'free order'라는 용어는 농인의 언어인 수화는 어순이라는 문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문법장치를 통해 주어, 목적어를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순은 중요하지 않으며, 한국수화 문장을 볼 때 어순을 보아서는 안되며,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수화에서 어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한국수화문장(KSL)에서는 [나 너 좋다] [너 나 좋다] [좋다 나 너] [좋다 너 나] 등의 어순으로 모두 표현가능하다는 것이다(어순이 중요하지 않음). 그럼 한국수화에서는 어떤 문법장치를 사용할까요? 자료 수집과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Indexing, Eye Gazing, Body Shift, Role Shift, Constructed Action, 화제화(NMS, 특징적인 눈썹과 눈, 턱의 움직임) 등의 문법 장치를 사용한다. 한국어와 한국수화의 이러한 차이(주어, 목적어를 표시하기 위해 어순을 활용하는가 여부)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수화를 볼 때 명사에 해당하는 두 세 개의 단어를 보았을 때(명사 명사 동사, NNV) 선불리 주어 목적어로 특정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나 너]라는 명사 혹은 대명사를 보자마다 '나는 너를'이라고 해석하면서 수화를 보게 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뒤에 오는 동사와 앞에 제시한 다양한 NMS와 공간 활용을 통해 나를 주어로도 목적어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화의 free order 특성, 즉 어순을 통해 주어 목적어를 특정짓지 않고, 다른 문법 장치를 통해 주어 목적어를 표현하는 한국수화의 특성은 조사와 어순이 너무나 중요한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수화 학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순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수화를 하는 농인(한국수화 사용자)과 주어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한국어나 손짓 한국어 사용자가 대화하는 상황이란 의사소통 단절 및 오해 축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주어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② 한국수화 동사의 종류와 특성: 한국수화는 공간을 활용하는 시각언어다

한국수화에서는 동사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동사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수화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칭과 성, 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 단순동사(plain verb, 그러나 단순동사도 연속상, 완료상, 반복상 등 Aspect에 따른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와 인칭과 성, 수, 상에 따라 변하는 일치 동사(agreement verb), 인칭, 성, 수, 상에 따른 변화는 없으나 행위 관련 장소나 움직임에 따른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동사(spatial verb)가 그것들이다.

수화 동사의 종류에 따라 주어 목적어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디서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수화 동사를 배울 때, 그 의미와 함께 동사의 종류, 즉 단순동사인지, 일치동사인지,

공간동사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해당 수화 동사가 일치동사라면 앞에 어떤 어순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이 나열되어 있더라도(물론 단어마다 특정 공간에 할당되어 있어야 함) 시작점과 끝점, 혹은 방향에 의해 주어나 목적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_a 너_b a주다_b(내가 너에게 주다)

나_a 너_b b주다_a(니가 나에게 주다)

이에 비해 단순동사(plain verb)는 시선응시나 특정 공간 가리키기(indexing), 몸의 방향 바꾸기(body shift) 등과 같은 NMS 함께 동사 표현이 나타나면서 주어 목적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수화문: 남자_a 여자_b 좋다(a 공간을 가리키거나 바라보며)

번역: '저 여자는 이 남자를 좋아한다'

수화문: 남자_a 여자_b 좋다(b공간을 가리키거나 바라보며)

번역: '이 남자는 저 여자를 좋아한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움직임의 공간을 활용해서 나타내는 공간동사의 경우 인칭이나 수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없다는 점에서 단순동사(plain verb)와 유사하지만 행위 장소 관련 정보나 어떤 명사 종류가 어떻게(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행위를 하였다는 정보가 수화 동사에 함께 표현된다는 점이 다르다.

한국어와 달라 한국수화는 굉장히 친절하다. 특히 수화 동사에 주어 목적어가 무엇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디서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표현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수화를 보고 학습하고,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어 사용자에게 아주 힘든 일이다.

수화 동사의 종류 유형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도둑이 경찰에 잡혔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이와 동일한 의미의 수화문장으로 바꿀 때, 수화 동사 [잡다]가 일치동사(시작점과 끝점 혹은 손의 방향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이기 때문에 두 문장 모두 [경찰 도둑 잡다] 순으로 하든, [도둑 경찰 잡다] 순으로 하든 관계가 없고, 즉 어순이 중요하지 않고 [잡다] 수화 동사의 손의 방향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하게 된다.

[경찰_a 도둑_b a잡다_b] 혹은 [도둑_a 경찰_b b잡다_a] 라고 수화를 했다면 어순에 관계없이 이 수화 문장은 '경찰이 도둑을 잡다' '도둑이 경찰에 잡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어 동사에 해당하는 수화 동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사 유형을 알아야 해당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가 어느 것인지 표현할 수 있다. 수화 동사의 유형 혹은 종류가 단순동사인지를 일치동사인지를 공간동사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치동사는 공간을 인칭 혹은 주어 목적어를 표현하는데 사용하지만, 공간동사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또한 단순동사나 공간동사는 어떤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이고 목적어인지 나타내기 위해 어순이 아니라 화제화(대표적인 NMS, 눈썹이 올라가고 눈에 힘을 주고 머리카락에 움직임), Indexing, 눈의 응시(시선변화), 몸

의 방향 바꾸기, 역할 변경, Constructed action 방법을 사용한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 주어 목적어를 특정 짓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주어의 인칭, 성, 수, 동사의 상(Aspect)의 변화에 따라 수화 동사의 형태가 변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수화 동사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동사의 유형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해당 수화 동사가 단순동사(Plain verb)라면, 어순이나 손의 위치를 보아서 주어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좋다]라는 수화 동사는 단순동사인데, 이 동사는 주어의 인칭, 성, 수에 따라 형태 변화가 없는 동사이다. 또한 주어 목적어를 [좋다]라는 동사의 방향이나 손 모양, 위치 등에 의해 나타낼 수 없는 동사이다. 따라서 이 경우 [좋다]라는 동사를 하면서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수화 동사를 하기 전이나 동시에 특정 공간을 가리키기(Indexing)가 나타났는지, 수화 동사를 하면서 몸의 방향을 특정 방향으로 틀면서 했는지, 수화 화자가 자신을 상대방이나 제3자, 할아버지 할머니 등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서 수화를 하는지(Role Shift) 등을 볼 수 있어야 주어가 누구인지, 목적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개 고양이 좋다]라는 수화 문장이 반드시 '개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를 의미하지 않고 [좋다]라는 수화를 하면서 동시에 표현된 NMS에 따라 '고양이는 개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즉, 한국수화에서는 어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순으로부터 자유롭고, 어순에 매이지 않으며, 어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순이나 조사를 활용해 주어, 목적어를 나타내지 않고 다른 문법 장치를 활용한다. 한국어 문장 속의 동사에 대응하는 수화 동사가 단순동사(plain verb)인지, 일치동사(agreement verb)인지, 공간동사(spatial verb)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손짓 한국어(Signed Korean)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손짓 한국어(한글식 수화, 아식 수화, 한국어대응수화)가 언어학적으로는 한국어인데,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어 어순에 의존하고 수화 동사 단어를 하면서 한국수화에서처럼 NMS(눈의응시, 공간 가리키기, 몸의방향틀기 등)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사의 주어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한국어의 기본 문형인 주어-목적어-동사 어순에 맞는 손짓 한국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 어순에 어긋나는 경우, 주어 목적어를 알아보지 못해 수화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은 손짓 한국어로 한국어 문장을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로 대체한 수화 문장입니다.

손짓 한국어 문장 예: [어머니 항상 피곤하다 아버지 걱정하다]

이 문장을 농인이 수화로 보았다면 어떻게 해석할까? 아마도 '어머니는 항상 피곤해 하신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걱정이다' 그런 어머니를 걱정하신다 그런 어머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지 않을까요? 농인이든 청인이든. 하지만 이 수화 문장은 '어머니는 늘 피곤해하시는 아버지가 걱정이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손짓 한국어(한글식 수화)로 바꾼 수화 문장이었다. 손짓 한국어에서는 한국수화처럼 주어, 목적어를 다른 문법장치를 통해 명시하지 않고 한국어 어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과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 춥다 물 싫다] 혹은 [나 차다 물 싫다] 라는 수화 문장은 어떻게 해석될까?

[춥다]의 주어, [싫다]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위 문장을 '나는 춥다 나는 물이 싫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문장도 '나는 찬물이 싫다'를 손짓 한국어 문장(한글식 수화 문장)으로 바꾼 경우에 해당한다. [차다] 혹은 [춡다], [싫다]의 주어가 무엇인지 손짓 한국어에서는 단서가 어순이나,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라는 단서밖에 없지만, 한국수화에서는 어순에 의존하지 않고 앞에 제시된 명사나 대명사 중에 주어가 무엇인지 시선이나 가리키기 등의 NMS를 통해 명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 쉽다. 손짓 한국어가 한국수화보다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수화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주어의 생략은 미국수화와 한국수화 모두 아주 흔한 현상이다. 수화 화자가 주어인 경우, 앞에서 주어를 명시하고 주어에 변화가 없는 경우 주어가 생략된 동사나 동사구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어순이 중요하지 않기도 하지만, 주어-목적어-동사 어순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목적어-주어-동사 어순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주어가 생략된 문장, 심지어 공간 설정을 통해 특정 공간을 목적어 대신 설정한 경우 목적어-동사, 혹은 동사-동사-동사 구조의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수화에서 Role shift(할아버지가 되어서 수화를 하고, 할머니가 되어서 수화를 하고)를 사용하는 경우 전반부에 주어가 한두 번 나오고 나서는 주어가 계속 생략 될 가능성이 높다. Constructed Action까지 활용하신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화에서는 주어의 변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명시한다는 점이다. 등장인물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아주 명백하게 이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지 반드시 명시한다. '아들이 속을 털어놓지 않으니, 답답하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를 해서 해석하는 안되는 이유다. [답답하다] 수화 앞에서 답답한 주체를 명시하거나 주어로 Role shift 하거나 답답하다 수화를 하면서 미리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을 표시하도록 설정된 공간을 응시하거나 그 주어답게 [답답하다] 수화를 하거나(Constructed Action), 좌우공간을 아들과 아버지 등으로 설정하고 몸의 방향을 틀면서 수화하거나 이런 문법 장치를 활용한다. 이렇게 안하고 손짓 한국어(수지 한국어, 한글식 수화, 한국어 대응수화)처럼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 바꾸기를 한다면 주어가 바뀌게 된다. '아들이 속을 털어놓지 않아서, 아들이 답답하다'로 해석된다. 주어의 명시와 생략, 변화에 따른 명시 모두 한국수화가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아주 명시적으로 친절하게 표시하고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생략해도 주어에 대한 오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어 상으로는 생략했지만, 공간활용, NMS(눈의 응시, 가리키기, 몸의 방향, constructed action 등)를 통해 계속 주어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③ 대명사 처리: 그 남자, 저 책은 없다

한국어 문장에는 수많은 그 그녀 이것 저것 그것이 존재한다. '그 남자' '이 책' '우리 학교' '너희 팀' 등. 앞 뒤 문맥에 따라 각 대명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공간을 활용하는 시각언어인 한국수화는 공간을 지적하여 대명사로 사용하거나 일치동사나 공간동사에서 공간이 주어나 목적어,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 공간이 특정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책]이라는 수화는 없고 [책a 그a]라는 수화가 나타난다(특정공간 a에서 책 수화를 하고 그 공간 a를 지적해야 [그]라는 수화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주었다'에 해당하는 수화문장에서 주다는 일치동사이므로 주어 목적어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특정 공간 a(b(보통 좌우)에 설정되고 [주다]라는 수화를 할 때는 a주다b 혹은 b주다a 수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 [선생님 학생] 수화를 모두 중립공간에서 하고 [주다] 수화를 공간을 활용해서 하더라도 이상한 수화 문장이나 주어가 바뀌게 된다. [우리]나 [너희] 수화도 우리가 의미하는 대상을 정확히 사전에 공간에 설정하고 수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를 발생하게 된다. 한국어 문장 '그 남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가 수화 문장으로는 아주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 한국어 문장을 손짓 한국어 식으로 [그 남자 그 우리 주다]라고 수화를 하더라도 표현한 것이 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다. [나1 선생님a 책b 학생들c 그b 그a 우리c a주다c] 수화문장이 더 이해하기 쉬운 이유는 특정공간 a b c가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문장을 단어마다 그 어순 그대로 수화를 한다면 한국어 문장의 수많은 이 그 저는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수화를 몸 앞쪽 중립공간에서 계속 수화한다면(공간 활용하지 않으면) 일치동사나 공간동사의 수화하는 위치가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거나 뒤바뀌게 될 것이다. 단순동사의 경우도 Indexing이나 Eyegazing을 통해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수화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④ 문장의 구성(복문처리)

미국수화의 경우,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시켜 표현하는 경우, 1) 관계사절을 나타내는 NMS(일명 R 표정, 화제화 관련 t 표정보다 하나의 요소, 머리의 기울림이라는 요소가 하나더 추가 됨), 2) Indexing 3) Role shift or Constructed Action 등의 문법 장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수화 또한 2)번과 3)번 문법장치를 통해 복문을 표현하는 것은 확실하고 1)번 문법장치가 존재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영어와 같이 관계대명사를 통해 복문을 만드는 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수화의 복문 표현방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어머니는 늘 피곤해하시는 아버지가 걱정이다

손짓 한국어(Signed Korean)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 예:

[어머니 항상 피곤하다 아버지 걱정하다]

손짓 한국어에는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수화를 한다. 하지만 위 수화 문장은 한국수화는 '어머니는 항상 피곤해시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가) 걱정이다'라는 뜻이 된다. 원 한국어 문장과는 전혀 다른 뜻이 되고 주어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한다. 손짓 한국어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이유다.

한국 수화 표현 예:

시선->a 시선->b

1) [아버지a 어머니b 항상 피곤하다 걱정하다]

시선->b 시선->a

2) [어머니a 아버지b 항상 피곤하다 걱정하다]

시선->a 시선->b

3) [아버지a 어머니b 피곤하다 항상 걱정하다]

4-1) [아버지a 항상 피곤하다 모습 1보다a 어머니 걱정하다]

4-2) [아버지 항상 피곤하다 때문에 어머니 걱정이다]

시선->a

시선->b

5) [아버지a 피곤하다 항상 어머니b b보다a 걱정이다]

6) [어머니 걱정하다 what(or why)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Role shift _____

7) [어머니 걱정이다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Role shift1 _____ Role shift2 _____

8)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어머니 걱정이다]

6)번 수화 문장은 많은 사례를 모은 경우가 아니어서, 보편적인 사용인지, 자연스러운 문장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수화 화자가 자신에게 청자의 주의 집중시키고자 하거나, 화법의 한 종류로 사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7) 8) 번 문장처럼 주절의 목적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종속절에 나타나는 경우, Internal Head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라고 한다. 이에 비해 한국어나 영어는 주절과 종속절의 공통요소가 주절에만 나타난다. 이런 경우를 External Head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라고 한다.

한국어 예: 나는 아버지가 주신 책을 잃어버렸다.

영어 예: I lost the book that my father give me.

Indexing 등을 사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복문)으로 표현한 한국수화 문장의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나는 고양이를 쫓아가는 저 개가 좋다(좁 억지 문장이죠)

손짓 한국어: [나 고양이 쫓아가다 저 개 좋다]

한국수화: [고양이a 개b 쫓아가다a 공간가리키기b 나 좋다]

시선->a

[개a 고양이b a쫓아가다b 공간가리키기a 나 좋다]

한국수화는 어순이 중요하지 않으며, 어순이라는 문법장치를 활용하지 않는다. 또한 아주 친절한 언어다. 눈, 눈썹, 턱, 머리, 시선처리, 몸의방향, Role Shift, Constructed Action 같은 NMS(Non-Manual Signal, 손 말고 다른 곳에 담긴 정보, 얼굴표정을 의미하지 않음)를 통해 아주 친절하게 주어 목적어 동사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언어다. 그래서 손짓 한국어보다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⑤ 주어 생략

한국어는 정말 주어 생략이 흔하다는 점에서 악명이 높다. 얼마전 모 청와대 수석이 모 국회의원에서 보낸 문자도 주어 생략 문제로 큰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다'

주어가 생략되거나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들(이주노동자, 청각장애인, 학습장애인 등)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도 종종 오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영어나 한국수화는 주어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영어는 심지어 가주어를 내세워 문장을 만들기까지 한다.

물론 한국수화도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a. 수화자(Signer)가 주어인 경우

대화중에 수화자와 상대방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어 변경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b. 앞부분에 주어가 명시되고 주어(주체) 변경이 없는 경우

역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 앞부분에 제시된 주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주어 없이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장이 길어지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주어 변경이 없는 경우도 다시 한 번 주어를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한국 수화는 손짓 한국어(Signed Korean)나 한국어와 달리 아주 친절한 언어다. 누가 주어인지,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표시한다. 주어-동사 간 호응 파악이 용이한 언어인 것이다.

한국 수화에서 주어 표시 방법으로 사용하는 문법 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a. NMS: t expression (Topicalization)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커지며 눈에 힘을 줌

b. 눈의 응시(Eye-Gazing): 동사 수화를 하면서 이미 설정된 공간 등을 보며 수화를 하느냐

에 따라 주어가 달라진다.

c. 몸의 방향(Body Shift): 이미 설정된 공간(보통 좌 우, 좌 중 우) 중 어디로 몸을 향하며 수화를 하느냐에 따라 주어가 달라집니다.

d. 가리키기(Indexing): 손으로 가리키는 방식

e. Constructed Action: 해당 동사 표현을 주어답게, 그 사람답게 수화를 함으로써 주어가 누구인지 표시하는 방법

f. 역할 변경(Role Shift): Constructed Action 과 결합해서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몸의 방향을 바꾸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수화자가 아버지가 됐다가 딸이 됐다가 하면서 달리 표현하여 주어를 표현하는 방법

한국어 문장: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손짓 한국어: [나 낳다 기르다 부모 감사하다]

위 한국어 문장을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를 하게 되면 한국수화 사용자들에겐 한국어 원 뜻이 아니라 '나는 아이를 낳고 기른다 부모님이 감사한다'라는 뜻으로 보이는 이유도 한국 수화의 주어 생략 특성 때문에 그렇다. 어떤 언어든 주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이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의사소통할 수 없을 것이다.

3) 농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농인을 위한 삶(for), 농인에게 다가가는 삶(to), 농인과 함께 사는 삶(with)을 준비하는 수화 교육이어야 한다.

19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법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로 및 공원,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차 많은 편의시설(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편의시설 설치 증진법’이라 불린 정도로,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청각장애인이 간절히 원하는 정보 접근권 및 시설·설비 이용권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욱이 이 법을 통해 설치되고 있는 편의시설

등도 접근권 보장의 근거 및 실천 원리인 Universal Design에 걸맞은 시설과 설비가 아니라, 즉 장애인 등도 이용가능한 시설과 설비가 아니라 ‘장애인용 시설과 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는 화장실 측면에서 세 가지 성이 존재하게 되고 말았다(남자, 여자, 장애인).

청각장애인들도 여느 장애인들처럼 청각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라 함은, 안에서 사람이 볼 일을 보고 있음이 문에 표시되거나 불빛을 통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알람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청각장애인들은 밖에서 푹푹 하는 소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볼 일을 보아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현실적인 해결방법으로는 문에 손을 대고 볼 일을 보거나 신발을 벗어 문아래 틈에 밀어 넣고 볼 일을 보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의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의 청각장애인들보다 보다 자신감 있게, 뭐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팩스와 문자 전화기, 더 좋은 청취보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팩스 및 청각장애인용 문자전화기(TDD의 일종)를 청각장애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든 관공서, 학교,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대중 이용시설에 모두 설치하고 TDD 번호와 팩스 번호를 음성 전화번호와 함께 병기하여 청각장애인도 원거리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전역에 공중전화 3대 중 한 대는 TDD를 설치하여 미국 어디서나 청각장애인이 원거리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진 2). 더욱이 1989년부터 전화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실시하여 음성전화 사용자와 TDD(Telecommunication Device for the Deaf) 사용자 간의 전화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사진 3), 2005년 이후는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과 음성 전화 사용자 간의 전화 중계 서비스인 VRS(Video Relay Service)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사진 4,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문자 기반 TRS와 VRS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동시에 시험 서비스하고 있다, www.relaycall.or.kr, www.trsr.or.kr). 즉, 청각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나 청취보조기기 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전화, 공공이용시설, 관공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사회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혹은 Universal Design or Redesign 했기 때문에 농인 의사, 물리학자, 교육학자, 전문가 등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청각장애인용 청취보조기기나 정보통신기기만이 청각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좁은 논의에서 벗어나 청각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문제를 청각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라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CI 수술이나 보청기 등의 청취보조기기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 개인을 유능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에서 벗어나, 청각장애인들이 노력하는 만큼이나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지역사회, 한국 사회 모두 함께 노력하고, 유능해져야 함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접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한국 사회에 관한 논의를 위해 청각장애인들의 장애가 왜 발생하며, 그들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공부하고, 사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997년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한국농아인협회의 강력

한 요구에 의해 2003년 12월 31일 이 법 4조 접근권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개정되기 전과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7년 이 법의 제정 당시 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장애인도 다른 비지체장애인들처럼 ‘남의 도움 없이’ 해당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추기를 요구하였기에 이렇게 정의 내려진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체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버스 타고 싶고, 지하철 타고 싶고, 2층 이상의 건물에 접근하고 싶었고, 더욱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남의 도움 없이 이러한 교통접근 및 시설접근에의 요구가 권리로서 인정되기를 원했기에 만들어진 조항이었다. 이를 통해 지하철역 등에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많은 건물 등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등 부족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남의 도움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나 기술이 없고(기술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왕성하게 공부하고 사회참여하고 있음에도 접근권의 구현 방식이 ‘남의 도움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나 시설에 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은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지원 받지 못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접근권의 정의가 되도록 한 것이다. 즉 보다 보편적인(Universal) 법 내용이 된 것이다.

4조 접근권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16조 2항이 신설된 이유도 같은 이유다.

제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 ①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상의 한계만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장애가 왜 발생하며, 그들의 보다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어떤 접근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장애 전문가들은 장애는 한 개인의 신체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에 의해 발생하며[A≠B], 따라서 이러한 손상과 기능 저하를 제거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장애가 극복될 수 있다고 믿고, 가능한 한 비장애인 혹은 평균적인 사람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A=B]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남과 다르게 대하고, 남과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것[A≠B]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인을 남과 똑같이

대하고, 남과 똑같이 버스타고, 지하철 탈 수 있도록 하는 것[A=B]이 차별 철폐라고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애 인식과 차별 인식은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비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을 무능하다고 바라본 결과, 얻어진 인식으로서, 최근 청각장애인들과 관련해서 병리학적 관점이 거부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화적 관점과 대치되는 인식이다.

최근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deaf person), 무능한 사람(disable)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seeing person), 유능한 사람(able)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정보를 청각화 했을 때(A)보다 정보를 시각화했을 때(B) 더 잘 의사소통하고, 학습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 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 5, 6, 7, 8). 즉 자신들은 A 방법보다 B 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학습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의 A 방법에 익숙한 대부분의 건청인들 혹은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A 방법만으로 의사소통하고, 학습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참여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애(Social Participation Restriction 혹은 Activity Limitation)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오히려 남과 똑같이 의사소통하고, 공부하라는 것[A=B]은 오히려 차별이며, 장애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남과 다른 방법, 청각장애인이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는 B 방법이 허락되는 사회일 때[A<B], 청각장애인들의 장애가 제거되고,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철폐된다고 본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이유는 단순히 청각장애인 관련 공학 기기 및 기술의 개발 미비나 지지분함 때문은 아니며,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한국 사회가 어떠해야 함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차별은 ‘남과 다르게’가 아니라 ‘남과 똑같이’ 청각장애인을 대하고, 남과 똑같이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 청각장애인들은 지난 몇 백 년 동안 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청인들도 청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농인 피터 폴 교수의 수업에서는, 농인 교수는 청인 학생에게 음성 언어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교수에게 질문할 때 수화를 사용한다고 한다.

청각장애인들은 정보의 시각화에 근거해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야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들과 청인들이 함께 더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사회는 그들의 유능함(Deaf Power)에 근거하여야 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대한 통제 권한을 돌려주는(Deaf Empowerment) 방향으로 방향 매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청각장애인의 무능력(disability)이 아니라 그들의 유능함(ability),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바램(want)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한 개인 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한 개인의 노력과 능력 향상만으론 해결될 수 없으며, 이 사회, 특히 청인들과 청각장애인들이 생활방식, 문제해결방식, 공존방식에 대한 협상과 청각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 막고 있는 청인 중심의 정보접근 방식, 생활방식, 업무 처리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아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인의 삶과 언어를 배우는 ‘수화 교육’은 ‘수화’만 배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인의 삶’을 기억하고, 농인을 위한 삶, 농인에게 다가가는 삶, 농인과 함께 하는 삶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수화 교육 수강생뿐만 아니라, 강사 또한 ‘수화는 농인의 언어’이며, 대부분의 농인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수화를 처음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화를 모국어 수준으로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수화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화가 없으면 속 시원히 대화할 수 없고, 문제 해결하며, 살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수화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수화 교육 현실 때문에 ‘수화만 잘 하면 농인계에서, 수화통역사들 사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는 그리고 ‘수화만 잘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며, 농인들부터 존경받을 것이다’라는 [수화병]이 만성에 증증으로 만연하고 있으며, 농인을 위한 통역사(Interpreter for the deaf)가 아니라 수화통역사(Sign Language Interpreter)가 양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수화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수화 혹은 수화 노래 혹은 수화 노래 공연에만 관심이 있고, 농인을 위한 일도, 농인에게 다가가고, 농인과 함께 하는 삶의 방식에 맞들이고, 그런 방식을 습관으로 택하는 수화 교실 수료생들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수화는 농인들의 언어이며, 농인들이 어떻게 살아 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배우지 못함만 못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 하에 기존 수화 교육을 재구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화교육이 수화도 아닌 수화 노래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교육하고, 유지하고 있고, 수료생들도 수화 노래 길거리 공연(통역하러 다닐 실력은 안 되고)으로 모임을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수화교육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곤 하지만, 기초반 100명 등록해서 그 중 30-40명이 중급반 가고, 고급반 10명 남짓, 결국 농인 옆에 남는 사람은 한 명 정도거나 없는 수화 교육의 현실이 매년, 매회기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그나마 남은 한 명도 대개는 정신지체인을 위한 활동이나 휠체어 밀러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 수화 노래가 아닌 수화, 수화가 아닌 농인의 언어, 수화가 아닌 수화가 소중한 농인들에 대해 먼저 철저히 공부시켜야 한다는 외침은 그나마 기초반 인기를 사그라뜨릴 지 모르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지금의 수화 교육 강사들이 아닌가 싶다.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수화 노래 외에는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으고, 모임을 유지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이제는 농인을 위한 삶으로, 농인과 공존을 가져오는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같이 활동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수화나 수화 노래가 자신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며 수화 교육에 몸담고 있는 강사들이나 운영자들이 농인을 위한 삶, 농인과 함께 하는 삶, 농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체험에서 자신감의 근거를 찾고 수화 교육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수화 노래 안하면 사람들이 안 올 것이라는 생각, 수화 교육을 제대로 타이트하게 하면 다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 잘 키워더니 정신지체나, 지체장애, 노인복지 쪽으로 도망가더라는 이런 자신감 없는 생각들은 떨쳐버리고 우리도 본질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농인들 곁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수화교육 담당자나 수화 학습자들은 농인에게 장애가 왜 있는 것인지, 왜 발생하게 되는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농인들은 왜 농인이고, 농인들이 자신들은 소중한 존재이며,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수화 교육 강사들은 분명히 알고, 지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농인들은 소

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deaf persons)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Seeing persons)이며, 정보를 청각화했을 때보다는 시각화했을 때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생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에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정보의 청각화, 음성 언어 등)만을 고집하려 하기 때문에 장애(Handicap, Social participation restriction)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해야만 수화 교육 장면에서 수화가 천사의 언어,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망상도, 불쌍한 사람들의 언어, 귀머거리의 언어라는 허상도 날려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수화는 농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능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농인들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지만, 농인과는 함께 일 못하겠다는 청인들을 양산하고 싶지 않다면 농인이 누구인지, 장애는 왜 발생하는지, 농인과 청인의 공존의 근거와 조건은 무엇인지 수화 교육 강사부터 치열하게 공부한 후 수화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미국에서 농인을 위한 통역사를 양성할 때 대학원 과정에서 5년 이상 많은 과목들을 수강하게 하고, 그중 절반 이상을 농인과 농인의 삶, 문화에 관해 공부한 후 수화를 배우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수화병’에 걸린 수화 교실 수료자들과 강사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 농인들로부터 수화 못한다고 쫓겨나는 수화통역사들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눈 버리고(농인이 하는 수화 이해 못하고), 손 버린(얼굴 표정 하나 없이, 공간 활용, NMS 활용 못하고) 것은 용서받아도 생각 버린 것은 용서 받지 못하고 내쫓김 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누가 수화를 배워야 하는가: 능동적인 수화 교육의 필요성

1980년대 이후 수화와 수화 교실이 인기를 끌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배웠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천 명이 넘는 수화통역사 시험 합격자들 중 전업으로 수화통역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지금의 현실,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수화 교육 강사 자격증으로 변질된 지금의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마디로 수화를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결실 없는 헛수고를 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수화 보급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논할 수 있으나, 농인을 위해, 농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청인을 아주 많이 양성하지 못했다는 수화 교육 운영 결과물은 우리에게 누구를 교육해야 하는가, 누가 수화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시금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수화를 아는 그 날까지 수화 교육을 하자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화를 배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농인과 함께 하는 삶을 택하고 있지 않다. 수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이제는 다시금 돌아보고, 농인들을 위해서 농인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사람이 수화를 알고, 볼 줄 알고, 할 줄 알면, 농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수화를 배울 수 있는 수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인들이 통역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화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수화 교육이 수동적으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와야지만 수화를 배울 수 있는 방식에서 그 사람이 수화를 할 줄 알면 농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수화를 가르치는 능동적인 수화 교육으로의 변모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농인들의 가족, 담당 교사, 농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 내의 약사, 사회복지

지 전문요원, 종합병원 의사, 간호사, 아나운서, 형사, 검사, 판사 등 농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능동적인 수화 교육, 돈 받고 가르치는 수화 교육이 아닌, 돈 주고, 선물 한 아름 안겨주며, 무릎 꿇고 배움을 청해서라도 가르치는 수화 교육이 이제는 필요하다.

III. 마무리하며

한국에서 수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수화 강좌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수화 강좌는 제2언어로서 수화를 인식하고 제2언어 강좌로서 수화 언어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화단어를 좀 알고 농인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누구나 수화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화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수화를 농인의 언어로, 농인의 언어답게 가르치고, 농인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수화 학습자들을 배출하려는 노력들이 일부 농인과 청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화는 언어다’ 라는 농인들의 피 맺힌 절규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수화는 ‘청인의 언어’가 아닌 ‘농인의 언어’ 이어야 하며, ‘수화는 언어다’ 할 때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한국 농인의 언어’, ‘한국수화’를 의미할 수 있도록, 수화의 대중 교육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또한 수화를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수화를 알고 사용할 때 농인들이 보다 정확하게 즐겁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수동적인 수화 교육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수화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이다.